

# 사대부 시조(時調)의 농촌성(Rurality)을 활용한

## 체험프로그램 연구

### -충남 홍성군 거북이마을-\*

#### The Meaning of Rurality in 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Written by Sadaebu

최자운\*\* · 김상범\*\*\* · 김은자\*\*\*\*

Ja Un Ch'oi · Sang Bum Kim · Eun Ja Kim

####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rurality in 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written by Sadaebu(사대부). We will discuss integration method for Rural and rurality. Rurality is not physical truth, but personal and subjective thing. The meaning of the rurality produce socially. So, the concept of the Rurality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Sadaebu in the Joseon period put emphasis on rural as a object of a self-discipline and govern. They compose a poem from rural life. There are various meaning related to rurality in 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The rurality meaning of the Sijo written by Yakcheon and Jonjae can define union between the natural order and poetic narrator. poetic narrators accept themselves to nature and work willingly. The host of the program must make visitors homesick and gives more energy by Sijo experience program. The most import

\* 본 연구는 2011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PJ007426)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e-mail: jauni@hanmail.net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e-mail: landlife@korea.ac.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e-mail: kej@korea.kr

thing is the identification of the visitor and rural. To accomplish these purpose, It needs visitors can sing a sijo by oneself.

주요어(key words): 농촌성(Rurality), 시조(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농촌관광(Rural Tourism), 프로그램(Experience Program), 약천 남구만(Yakcheon Namguma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 그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생활환경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관광 개발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농촌 활성화 관련 활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함께,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획일적인 문화, 교통 체증 등의 부작용으로 도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여가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농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도시민들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물, 강, 동식물, 깨끗한 공기 등을 찾아 여가를 보내거나 농촌을 관광 목적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박석희, 2001). 아울러, 농촌관광 방문객들은 농촌에서의 체험프로그램, 체험비용, 인솔자와 함께 ‘농촌성(Rurality)’을 농촌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장경수, 2010).

농촌관광에서 차지하는 농촌성(Rurality)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성의 개념 정립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조영국, 2009). 농촌성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농촌이 보유한 역사, 문화, 사회 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촌성의 반대 개념인 도시성(Urbanism)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의 대두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농촌성에 대한 개념화 작업은 도시성에 대한 개념 작업에 비해 늦게 시작된 탓도 있다(김정태 등, 2009).

농촌성 관련 논의의 두 번째 문제는 농촌성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실제로 농촌성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대한 현장 적용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요컨대, 농촌성에 대한 개념 정립 작업과 그 개념과 농촌자원들을 직접 연관지어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성은 물리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농촌에 대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이민수 & 박덕병, 2007). 농촌성의 개념은 시대나 계층,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그런 이유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농촌성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을 통해 선인들이 남겨놓은 농촌성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농촌성 개념 정립에 있어 필요하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농촌은 자기 수양이나 치세(治世)를 함에 있어 중요한 대상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 갈래의 문학작품을 통해 농촌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문학작품들 중 시조(時調) 갈래에는 농촌성과 관련된 논의의 단초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남긴 시조 작품에 소재하는 농촌성(Rurality)의 의미 층위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조를 주요 테마로 마을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에 현장 적용하여 농촌성 관련 논

의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성의 개념 정립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동향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조선시대 사대부가 남긴 시조작품의 분석을 통해 시조 내 농촌성의 의미 층위를 파악한다.

셋째, 사대부 시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농촌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체험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사대부 시조 내 농촌성의 개념과 대상지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촌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사대부 시조 소재 농촌성의 개념 파악, 대상지 체험프로그램 조사 및 마을리더와의 면담, 사대부 시조 내 농촌성과 대상지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모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회집단의 농촌성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사대부 개인 개인의 농촌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남긴 시조 자료 및 관련 문헌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개별 자료에 소재한 농촌성의 의미 층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에서 진행 중인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정월대보름굿, 장승제 등의 세시의례, 민요와 같은 구비문학, 풍물놀이 등의 민속연희 등이 체험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마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조(時調)를 주요 테마로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에 거북이마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마을 추진위원장, 이장 등 마을 리더, 지역 전문가와 심층 면담을 통해 흥성 거북이마을의 시조 활용 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농촌성의 개념

농촌성의 개념 정립과 관련된 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은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가 밀접해지면서 농촌의 역할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옥표(2000)는 농촌성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기, 풍요로운 녹음, 건강과 휴식 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 하면서 황폐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교류를 통하여 농촌을 되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농촌적인 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클라크 & 에드워드(Cloke & Edwards, 1986)는 농촌의 경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실제적 대상으로서의 농촌의 의미가 강조된 농촌성 개념을 제안하였다. 반면, 뉴비(Newby, 1980)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보다는 농촌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농촌성의 의미는 농촌 내부보다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발생,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몰몬트(Mormont, 1990)는 농촌성은 실제적 공간 개념이 아닌, 농촌 개발, 실제 농촌, 외지인들의 농촌 이주 등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사회공간으로서의 농촌으로 이해하였다.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체(agent)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개념의 농촌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윌리트 &

루로프(willits & luloff, 1995)는 농촌성이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개인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농촌다음의 개념 역시 앞으로 다양화될 것이라 하였다.

## 2.2. 기존 연구 고찰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촌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식 & 황한철(2002)은 농촌마을 정체성 확립에 있어 역사, 문화, 경관, 산업이 중요한데,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전통놀이, 농업 경관 등의 요소들을 잘 보존해야 정체성 확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문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분석한 논의도 있다. 안동만, 손주동, & 김명수(2005)는 농촌관광 활성화 위하여 농촌마을 어메니티자원을 유형화하여 내·외국인 대상 자원 선도도 및 농촌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도시민들의 농촌과 농촌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영국(2009)은 잠재 농촌관광 방문객인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우리 농촌을 이해할 때 어떠한 상징, 기호,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민수 & 박덕병(2007)은 도시민들의 농촌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차후 농촌 개발, 농촌정책 수립시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도시 성인 남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각기 농촌성을 다르게 느끼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혔다.

박덕병, 이민수, & 윤유식(2006)은 농촌관광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성 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 연간 여행 회수, 농촌 관광 회수, 이주의향 등이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대중 관광과 농촌관광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농촌관광 방문객,

여행 동반자가 가족이나 친척인 방문객 등이라 하였다.

농촌성 의미 측정 척도 개발하기 위해 박석희, 이동기, & 윤상현(2002)은 도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느끼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여 농촌관광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그리고 이정원, 정윤희, & 임승빈(2006)은 도시민들과 농촌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성의 세부 속성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차별화된 농촌성을 구체화시키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촌성 관련 논의는 도시민들 혹은, 농촌사람들이 인지하는 농촌성의 양상, 그들이 그러한 농촌성을 인지하게 된 요인 분석, 그리고 농촌성의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농촌성의 의미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박석희 외, 2003), 농촌경관(안동만, 2005), 지역성을 반영하는 건축의 특성(조용훈, 2003)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농촌성(Rurality)의 개념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인 농촌(Rural)이라는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정태, 강동우, & 이성우(2009)는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등의 서양학문과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학문인 실학(實學)은 공간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실학에서의 인식론은 서양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 농촌 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농촌성의 개념 정립에 있어 우리의 전통적인 사유체계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농촌성의 개념이 물리적인 실체이거나 특정 요소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개인의 인식에 의해 가변성이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전통적인 사유체계에 근거한 개개인의 농촌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련 마을사업 분야에 적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사대부 시조 내 농촌성(Rurality)의 발현 양상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끊임없는 정진을 통하여 물욕(物慾)을 제거하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자연의 흐름을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농촌을 포함한 자연(自然)이 그 자체로 이(理)를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연(自然)의 의미는 ‘사물, 현상을 배경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스러움’ 등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理)란 그러한 자연에 내재하는 순환원리로서의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사대부 시조 담당층들은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인식, 산수의 경물들이 불러일으키는 흥취와 정취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달랐다. 그 때문에 다양한 층위의 시조작품들이 노래될 수 있었다.

사대부 시조 작가들은 자연의 흐름 혹은 사시(四時)의 이치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 사건들로부터 느끼게 되는 감흥이나 흥취를 바탕으로 시조 작품을 형상화하면서 단순한 흥취 이상의 경지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을 실제적, 구체적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주관적, 이상적 공간으로 이해하게 된다.

농촌성에 대한 사대부들의 인식 및 표현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sup>1)</sup> 먼저, 15세기 청백리로 이름난 방촌 황희(1363~1452)가 지은 〈사시가(四時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조는 방촌이 오랜 관직생활을 마치고 만년에 농촌으로 돌아가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생활하는 농촌 사람들의 일상과 그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고 있다.

첫째 수를 보면, 봄이 되어 고기잡이 및 농사 준비에 한창인 화자가 등장한다. 그는 일손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둘

1) 조선시대 사대부 시조의 흐름은 신연우(2000), 신영명(1999), 임주탁(2010)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째 수의 작중 상황은 여름철 김매기 철이다. 이 수의 화자는 비가 오에도 김매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잠깐 일을 쉬는 틈에 깜박 잠이 들었다가 소 치는 아이에 의해 잠이 깬다. 두 번째 수에서는 노동 상황 및 화자의 고단함으로 인해 화자의 정서적 표현이 따로 노래되지 않은 것은 특징이다.

세 번째 수에서는 가을철 수확의 풍요로움과 취흥이 노래되었고, 네 번째 수는 추운 겨울철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한 늙은이가 배를 띄워 혼자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넷째 수에서 화자는 작중 대상인 노인에게 대해 외로움보다는 여유로움의 정서로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종장 ‘뉘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에서 보듯, 화자는 작중 대상인 노인을 바라보는 대상임과 동시에 그 노인에게 이입되기도 한다. 이 수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일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화자가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통해 농촌생활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겨울을 노래한 넷째 수의 경우 앞의 세 수와 비교해 농촌의 모습이 생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여유, 탐미의 공간으로서의 정서가 강하다.

방촌의 사시가(四時歌) 내 시적 화자는 농촌을 배경으로 자연의 순환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농촌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의 순환을 내면화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황이나 이이의 시조, 유희자적하면서 자연에 도피하거나 그 안에서 위안을 찾으려하는 이현보의 시조, 자연의 흐름 통해 사람의 질서를 극대화하는 주세붕, 정철의 시조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17세기 사대부 시조 작가 중 한 사람인 이홍유(1588~1671)의 〈산민육가(山民六歌)〉 내 시적 화자는 스스로 ‘산민(山民)’으로 자처하면서도 산민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생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넷째 수를 보면, ‘늘고 병든 몸을 世上이 버렸실스 | / 조고만 草堂에서니 | 무후 | 일

워두고/ 目前에 보이는 松竹아 느 | 붓인가 호노르'라고 노래하고 있다. 혼자서 한가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화자는 복잡한 세상사나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청풍명월이나 송죽을 벗 삼고자 한다. 그러나 그 행간에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출(出)의 욕구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화자가 관념으로만 농촌을 인식하고 농촌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의 즐거움과 여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홍유의 시조에서는 농촌성을 완전히 내면화했다고 볼 수 없다.

이홍유와 동시대 사람인 약천 남구만(1629~1711), 존재 이휘일(1619~1672)의 작품에서 노래되는 농촌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약천 남구만의 <권농가(勸農歌)>는 <진본 청구영언>에 1편이 전하고 있는데, 약천이 강릉지역에 유배되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동창(東窓)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약천의 <권농가>는 아래에서 살필 존재 이휘일의 <전가팔곡> 6번째 수와 작중 상황 및 소재, 화자의 태도 등이 유사하다. 이 시조에서는 아침 해, 노고지리,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일을 권유하는 어른이 등장한다. 종장에서의 화자의 발화를 명령이 아닌, 권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화자 역시 아이와 같이, 노동하는 존재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의 핵심은 이미 사시(四時)의 흐름을 체화(體化)한 어른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아이에게 농촌생활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대상에 대한 일방

적 언술로 일관하는 정철이나 주세붕의 〈훈민가(訓民歌)〉가 이르지 못한 경지이다.

존재 이휘일의 〈전가팔곡(田家八曲)〉은 사계절의 흐름과 하루 동안의 농촌생활의 일상을 노래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사계절의 흐름을 노래한 부분에서 화자는 봄이 되어 쟁기질을 하면서 파종을 준비하고, 여름철에는 땀 흘리며 김을 매며, 가을철에는 결실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겨울이 되어서는 한가로운 가운데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한다. 두 번째 부분인 하루의 일과를 노래한 부분의 경우, 새벽녘 밭 농작물 확인, 점심 때 일하면서 새참 준비, 저녁 무렵 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정경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노래되는 사시(四時)의 흐름과 하루 일과는 시간적 범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계이다. 즉, 이휘일은 불변하는 사시(四時)의 순환에 따른 농촌생활을 면면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

사대부 시조에서 노래되는 농촌성의 의미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개인의 현실적 상황 및 사상적 기반 등에 따른 내면화된 농촌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공간으로서의 농촌성은 치세(治世)의 대상으로서의 농촌, 은일 공간으로서의 농촌 그리고 청풍명월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농촌 등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의 시적 화자는 대체로 농촌에 동화되지 못한 이방인으로 그려지면서 농촌에 대해 관조하거나 바라보기만 한다. 반면, 개인에 의한 내면화된 농촌성은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와 농촌 간의 거리가 거의 없거나 일치한다. 이러한 동일화는 농촌에서의 노동, 자신의 학문적 기반, 혹은 목민관으로서의 이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시적 화자와 농촌이 무엇에 의해 합일이 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양상이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약천 남구만과 존재 이휘일의 시조 작품에서 노래된 농촌성의 개념은 농촌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통한 자연적 질서와 시적 화자와의 합일로 정

의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 노래되는 농촌은 철저한 생활 현장으로서의 공간임과 동시에 자연의 흐름과 합일된 세계이다. 따라서 이들의 시조 내 농촌성은 개인적 감상이나 교훈적 가치, 사상적 이념 등이 따로 노래될 여지가 없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은 농촌성에 대해 복지시설의 미흡, 주거 환경의 열악함,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기도 하고, 조용한 전원생활, 사람 간의 유대관계와 정, 전통문화의 보존 등의 이유로 인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 존재 이회일, 약천 남구만이 시조를 통해 표현한 농촌성에 대한 인식 속에도 도시민들과 같이, 부정적 태도를 가질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 년 사시사철 해야 할 농사일은 많은데다 노동 상황이나 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존재와 약천의 시조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요인들을 자발적 실천을 통해 기꺼이 상쇄시킨다. 자연의 흐름과 하나 되어 때에 맞게 생활함으로써 물욕(物慾)이 제거된 천인합일의 경지를 구현한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이면서 고매한 성격의 리(理)가 아닌, 실생활에서 구체적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 리(理)가 보다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4. 시조(時調) 내 농촌성의 현장 적용 가능성

### 4.1. 홍성 거북이마을 일반 현황 및 여건 분석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은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홍성 거북이마을이 속한 구항면은 전체적으로 지세가 거북이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구항(龜項), 구산,

귀목이라고 하였고, 내현리는 보개산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가 머리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 내현(內峴)이라 불렀다.

이 마을의 대성은 담양 전씨와 연일 서씨이고, 동래 정씨가 일부 살고 있다. 마을 인구는 전체 126명으로, 남자가 69명, 여자는 57명이다. 연령층을 보면, 가장 젊은 층이 50대이고, 대부분 60대와 70대이다. 마을 내 주민조직으로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농촌전통테마마을운영위원회, 농촌종합개발사업위원회 등이 있다. 전체 37가구 중 마을 토박이가 31가구이고, 전원생활을 위해 마을에 땅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이 6가구이다. 마을 경지를 보면, 논 15ha, 밭 19ha, 친환경농산물 경작지 15ha 등이고, 마을 주작목은 쌀과 고추, 담배, 무 등이다.

마을 지형은 9가지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는 보개산이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 지형자원으로는 담배밭, 고추밭, 생태연못, 보개산, 7바위,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대나무숲, 소나무숲 등이 있고, 역사문화자원으로, 정자, 구산사, 약천초당, 서낭당 등이 있다. 경관자원으로 과수원, 다랑논이, 시설자원으로 마을회관, 종합체험장이, 경제자원으로 마을 친목계 등이 있다. 주변관광자원으로는 구항면 북동쪽에 위치하면서 산 전체가 기묘한 바위와 봉우리로 이루어진 용봉산, 구항면 남쪽에 소재하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인 지석묘, 광천 새우젓, 김좌진장군생가지, 한용운선생생가지 등이 있다.

홍성 거북이마을의 강점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 보유, 수도권에서 접근 양호,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구산사, 약천초당 등 역사·인문자원 풍부, 보리고추장 등 특징적인 전통음식자원 보유,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높은 참여도 등이다. 약점은 마을 인구의 고령화, 보유 어메니티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도로에 의한 마을 체험공간의 분리 등이다. 마을의 일반 현황을 입지교통여건, 자연·인문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흥성 거북이마을 일반 현황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잠재력(기회요소)	활용 및 개선방안
입지 교통여건 분석	접근 -서해안고속도로 거쳐 국도 21호, 29호 통해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접근 가능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	-당진대천고속도로 예 산수덕사 I.C에서 접근 성 제고
	주변 관광자원 -서부남당항, 천수만 공리 방조제, 용봉산, 홍주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오서 산 역사골 등반대회, 홍 성 어린이사랑대축제, 홍 성 내포축제 등 개최	-충남 최우수축제에 선정 된 내포축제와 연계 통 하여 연중 체험객 증가 예상(내포축제의 주제가 내포의 옛장터이기 때문 에 거북이마을의 체험 주제와 연계 용이)	-청풍사, 덕산사 등 거 북이마을과 유관한 주 변 관광자원과 네트워 크 구축 통해 방문객 증가 효과 기대
자연환경 분석	지형 -발음계 남쪽에 마을 위치. -마을 전체가 보개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도로가 마을 중앙 관통	-마을 초입 다목적 마을 회관(2011년 하반기 완 공예정)을 마을 랜드마크 요소로 활용 가능	-다목적 마을회관, 장충 영각, 생태연못 중심의 테마별 체험공간 조성 가능
	식생 -마을 내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및 대나무숲, 밤 나무, 사과나무 등 다양 한 수종 보유, 보개산 및 생태연못의 생태적 가치 높음	-솔바람길 내 자원을 활 용할 자연생태 교육, 체 험공간 연계 가능 -연못을 활용한 수생식 물, 곤충 관찰 가능	-마을 뒤 다랭이논을 농 사체험 학습공간 활용 가능 -5가지 테마의 솔바람길 활용 통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능
	경관 -마을 곳곳의 담배밭과 고 추밭, 보리밭, 연못, 느티 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져 토속적 농촌경 관 유지 -옛마을회관 및 방치된 폐 창고 존재	-다랭이논, 시냇물, 생태연 못, 뒷산 등 전형적 토 속 경관 활용 가능	-옛마을회관 및 창고 정비 -경관과 어울리는 민가 지붕 개량 -공동정화조, 쓰레기소 각장 설치
인문환경 분석	토지 이용 -주거지, 논, 밭, 과수원, 임 야 등 다양한 토지 이용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한 방문객들의 체험동선 분리 및 공간 의 이분화	-솔바람길 및 소나무숲 산책로 활용 가능 -숙소 및 문화체험공간 으로서의 장충영각 활 용 방안 모색	-마을 잣길 공터에 보 리 및 경관작물 식재 -선비문화체험공간으 로서의 장충영각 주변 공간 정비
	토지 소유 -토지 소유는 대부분 사유 지로 구성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이후 지가 상승 추세	-사회적 기업((주)지랑) 의 활동을 통한 최소 한의 토지 매입과 개 발 방침을 인두시킨 토 지 이용



〈그림 1〉 홍성 거북이마을 어메니티자원

#### 4.2. 홍성 거북이마을 체험프로그램 현황 분석

홍성 거북이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대부분 서울, 인천 및 경기남부지역에서 온다. 드물게 부산 경남지역이나 강원, 호남지역에서 찾기도 하나, 그 사람들은 다른 여행지를 가면서 홍성을 거쳐 가는 길에 마을에 들르고 있다. 방문객 유형을 보면, 단체 방문객이 60%, 가족 방문객이 40% 비율이다. 방문객 예약 접수는 사무장이 맡고 있는데, 전화 및 마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무장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마을 홍보, 특산품 판매,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민박집이 7군데 정도 되었으나 지금은 민박의 차별화를 위해 전통한옥인 장춘영각을 중심으로 민박을 실시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전영석 고택을 이용하기도 한다. 장춘영각은 넓은 거실과 큰 방이 4개 있는데,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한 어린이물놀이장과 생태연못이 있고 주변 풍광이 좋아서 여름철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문객의 호응이 좋다. 이곳은 담양 전씨 문중 소유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2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시작한 홍성 거북이마을은 2007

년까지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어 방문객의 숫자가 급감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마을에서는 체험공간의 정비, 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 체험 진행 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마을 수입을 보면,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농외소득이 마을의 주된 수입원인 쌀농사를 통한 수입에 조금 못 미친다. 마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입원인 담배농사 수입은 체험을 통한 수입의 절반 정도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체험프로그램 진행 및 방문객 대상 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입이 마을 전체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 거북이마을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각의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지가 오래된 관계로 마을 사람 모두가 개별 체험프로그램 진행의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성 거북이마을에서는 현재 느티나무 및 장충영각에서의 시조창체험, 느티나무와 명당체험, 한량무 감상, 보개산 7바위(삼형제바위, 산재바위, 굴바위, 줄바위, 보살바위, 말바위, 범바위) 전설 찾기 등의 전통문화체험, 생태연못에서의 대나무 낚시, 연 날리기, 팽이치기 등의 민속놀이체험, 보리고추장 담그기, 종가음식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의 전통음식 만들기체험, 소 여물주기, 떡메치기, 밤 줍기 등의 농가생활체험, 솔바람길 산책 등의 자연생태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솔바람길은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개발되고 있는데, 마을에서 보개산으로 이어진 5.8km 구간을 따라 산책하면서 야생화 감상, 산약초 채취 체험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을에서는 앞으로 방문객들과 길을 동행하며 안내하는 길 안내자(Road Guide)를 양성하여 솔바람길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솔바람길을 보개산에서 홍성읍 남산의 연리목 지점으로 확장하고, 용봉산, 고암 이용로 화백 기념관, 백월산으



로 이어지는 내포문화숲길과 연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솔바람길은 장거리 도보여행자들이 마을로 올 수 있는 통로로도 쓰일 것이다.

홍성 거북이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섯 종류의 체험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시조창체험, 보개산 7바위 전설 찾기, 장충영각 한옥체험 등의 전통문화체험이다. 거북이마을에서는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기 위해 시조창체험과 함께 2011년 여름철부터 일생의례(一生儀禮) 체험과 거북놀이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생의례 체험프로그램은 기자의례(祈子儀禮)에서부터 100일 및 돌잔치, 관례(冠禮), 혼례(婚禮), 장례(葬禮), 제례(祭禮)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방문객의 연령층에 맞는 개별 일생의례에 대해 진행자가 설명한 뒤 방문객이 직접 의례를 체험해보는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거북놀이체험은 주로 가을철에 수수잎, 벚짚 등을 엮어 거북 모형을 만들어 아이들 중심으로 거북 및 길라잡이 등의 역할을 정해 집 안 곳곳을 다니며 체험을 진행할 것이다.

홍성 거북이마을은 농촌종합개발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011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 중이다. 총 3개동의 한옥 형태로 지어진 이곳에서는 전통음식 만들기, 시조체험 등의 각종 체험과 함께 방문객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다목적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사회적 기업인 (주)지랑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되면 홍성거북이마을 체험프로그램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 4.3. 악천 남구만 <권농가(勸農歌)> 소재 농촌성의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홍성 거북이마을의 간판 체험프로그램인 시조창체험은 체험 진행 인력이 한 번 교체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시조창체험은 젊어서부터 시

조창을 즐기셨던 마을 어르신이 진행하였다. 그때는 어르신이 약천 남구만의 <권농가> 및 시조창에 대한 개론, 창(唱)을 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시조의 한 구절을 부르면 그 구절을 체험객들이 따라서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뒤 2000년대 중반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자, 거북이마을이 친정이면서 흥성읍에서 국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이 체험이 있을 때마다 마을에 와서 시조창 체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

현재 시조창체험은 여름철에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그 외에는 장충영각 거실에서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이 체험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시조창을 부를 때 필요한 장구 가락을 배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장구 가락에 맞추어 진행자가 시조를 한 구절 부르면 체험객들이 그 구절을 따라하면서 시조창을 학습한다. 시조창이라는 체험 자체가 방문객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진행자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구 반주와 함께 시조창을 배움으로써 보다 조금은 수월하게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장구 장단에 시조창을 부를 수 있게 된 체험객들은 마지막으로 시조창의 장단과 동일한 장단의 통속민요 두세 가지를 배운다. 시조창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구 반주와 흥겨운 민요 등을 시조창의 연장선상에서 배우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앞서 살펴본 약천과 존재의 시조 소재 농촌성의 핵심은 농촌에서 시적 화자가 자발적 실천을 통해 농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가 됨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자연의 흐름과 일치된, 물욕(物慾)이 제거된 경지를 체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농촌성의 개념을 실제 시조체험프로그램에 연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체험프로그램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족 단위나 단체로 당일 혹은 1박 2일 일정으로 시골로 체험을 온 도시민들에게 조선시대 사대부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시조를 부르는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옛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시조를 지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조 내 농촌성이 반영된 시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농촌을 1회적 체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고향과 같이 가깝게 느끼면서도 도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기왕에 만들어진 시조창을 그대로 따라 불러서 시조창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객이 시조 형식을 통해 자신이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조 따라 부르기는 시조의 형식을 배우는 면이 강하다면, 시조 지어 부르기는 시조의 의미를 배우는 성격이 강하다. 시조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서정시 갈래이다. 요컨대, 자신만의 경험이 녹아든 시조를 지어 부름으로써 농촌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표현된 시조를 지움에 있어 시조는 3장으로 이루어지고, 각 장은 4음보유격으로 구성되며, 종장 1음보는 3음절이라는 기본 형식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뒤 대상층이 초등학교 생활일 경우, <권농가>에 등장하는 아직 잠에서 아침 해, 깨지 않은 아이, 그 아이를 깨우는 어른을 활용하여 자신이 노래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스럽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종장에서 어른이 아이를 타이르는 것이 아닌, 숙제를 하고 싶지 않은 아이나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은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 어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혹은, 아동과 함께 온 부모가 대상일 경우 <권농가>가 아닌, <권학가(勸學歌)>를 지어서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자유 시조 짓기의 대상층이 청소년층일 경우, 시조의 기본 형식과 함께 각 장의 구성 방법을 초등학교생들보다는 자세하게 교육해야 한다. 초장에서는 시적 대상 혹은 상황을 제시하고, 중장에서는 그 대상과 시적

화자와의 관계, 그리고 종장에서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장의 내용을 수필 형식으로 쓰게 한 뒤 4음보 율격으로 압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진 뒤 〈권농가〉 소재를 활용하여 나만의 〈사시가(四時歌)〉를 짓도록 한다. 각각의 계절에 따른 자신의 생활과 그 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조 형식을 빌려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봄에는 개학, 여름에는 야간자율학습, 가을에는 성적표 받기, 겨울에는 다음 학년으로의 진학 준비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시조 형식에 기반하여 자신의 생각이 표현된 시조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시조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 예가 시조 그림 그리기, 시조를 랩으로 부르기, 시조 단편 소설 쓰기 등이다. 먼저, 〈권농가〉 소재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시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방문객들은 구산사, 느티나무, 생태연못, 대나무숲, 솔바람길, 장충영각 등 자기가 그리고 싶은 장소에 가서 어린이, 어른, 노고지리, 아침 해 등 〈권농가〉 소재를 등장시켜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등장인물과 배경만 주어지고 그림의 상황이나 그림의 주제는 자유롭게 그림으로써 체험객들은 자기만의 권농가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지은 시조를 랩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랩 자체가 일정한 라임(Rhyme)을 가지고 자신만의 플로우(Flow)에 따라 노래하는 갈래이니만큼, 연시조 형태로 시조를 짓고 자연스러운 플로우에 따라 시조를 노래할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랩 장르에 시조 형식을 접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약천과 존재의 시조에 내재하는 농촌성은 비단 시조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적용 가능하다. 현재 마을에서는 7바위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그 바위의 전설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해당 바위에 도착하여

그 바위의 전설을 들려준 뒤 바위의 전설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설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시간을 통해 방문객들은 7바위 전설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說話)의 특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남긴 시조에 내재한 농촌성의 개념을 추출하여 그것을 현재 시조를 테마로 운영 중인 마을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대부들은 농촌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의 시조를 노래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철저한 이방인으로 농촌의 변두리에만 머문 이들도 있고,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통해 농촌생활을 내면화한 이들도 있었다. 농촌생활에 대한 자기화의 정도에 따라 시조에 함유된 농촌성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개인의 현실적 상황 및 사상적 기반 등에 따른 내면화된 농촌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실제 공간으로서의 농촌성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치세(治世)의 대상으로서의 농촌, 은일 공간으로서의 농촌, 그리고 청풍명월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농촌 등으로 묘사된다. 반면, 개인에 의한 내면화된 농촌성은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와 농촌 간의 거리가 거의 없거나 일치하였다. 시적 화자에 의해 내면화된 농촌성은 절기에 따른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시조 내 농촌성을 농촌마을에서의 시조 체험프로그램에 연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1회적 체험 장소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과 같이, 친밀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조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서정

시 갈래인 관계로, 자신만의 경험이 녹아든 시조를 지어 부름으로써 농촌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성이 반영된 시조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기본적인 시조의 형식 및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시조 짓기, 시조 그림 그리기, 시조를 랩으로 부르기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농촌성의 개념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남긴 시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에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였다. 후속 논의에서는 과거 선인들이 남긴 문학 갈래 중 일상적, 대중적 농촌성에 대한 논의 및 현장 적용을 위해 노동요 및 유희요 등의 민요(民謠)에 내재된 농촌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인들이 남긴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에 내재된 농촌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논의를 통하여 농촌성의 의미 규명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 참고 문헌 ■

- 김영주. (2008).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212-218.
- 김정식, & 황한철. (2002). 농촌마을 정체성의 개념 정립과 확립방안 모색. *한경대 학교 논문집*, 34, 171-176.
- 김정태, 강동우, & 이성우. (2009). 농촌성과 도시성의 인식론적 이해. *농촌계획*, 15(3), 51-56.
- 남구만. (2004). *(국역)약천집*.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 문옥표. (2000). 그린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농촌사회*, 10, 205-232.
- 박덕병, 이민수, & 윤유식. (2006). 농촌관광 방문객의 농촌성(Rurality) 인지 영향 요인. *호텔관광연구*, 8(3), 205-209.
- 박석희. (2001). 농산촌 관광목적지 방문 및 체재의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원 휴양학회지*, 3(2), 165-175.
- 박석희, 이동기, & 윤상현. (2002). 농촌성의 의미와 측정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농업연구*, 9(1), 22-37.
- 신연우. (2000). *사대부 시조와 유학적 일상성*. 서울: 이회.
- 신영명. (1999).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田園'과 '田家'의 형상. *한국시가연구*, 6, 148-157.
- 성당제. (2005). 약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연구*, 35, 258-280.
- 안동만, 손주동, & 김명수. (2005). 농촌경관의 농촌성과 선호도 평가연구. *농촌계획*, 11(3), 43-52.
- 이정원, 정윤희, & 임승빈. (2006). 농촌어메니티자원의 농촌성 특성. *농촌계획*, 12(2), 2-7.
- 이민수, & 박덕병. (2007). 도시민의 농촌성 인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촌경제*, 30(3), 38-43.
- 임주탁. (2010). 조선시대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 29, 45-60.
- 여기현. (1988). 강호시가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1, 148-152.
- 장경수. (2010). 농촌관광 방문객의 만족결정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7), 402.
- 장정룡. (1995). 동해시 망상동 유적과 약천 남구만 시조작품. *강원민속학*, 11, 91-96.

- 조영국. (2009). 수도권 한 대학생집단의 농촌인식. *국토지리학회*, 43(2), 246-253.
- 조용훈. (2003). 학교 건축의 도시성과 농촌성: 학교건축의 경계성, 지역성, 낭만성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10(3), 94-101.
- Cloke, P., & Edwards, G. (1986). Rurality in England and Wales 1981. *Regional Studies*, 9(2), 113-121.
- Mormont, M. (1990). Who is rural? or how to be rural? In T. Marsden, P Lowe & S. Whatmore (Eds.), *Rural Restructuring: Global Processes and Their Responses*. London, UK: Fulton Publishers.
- Newby, H. (1980). Rural sociology. *Current Sociology*, 28(1), 1-141.
- Willits, Fern K., & Luloff, A. E. (1995). Urban residents' view of rurality and contacts with rural places. *Rural Sociology*, 60(3), 454-466.

논문투고일: 2011. 2. 12

1차수정일: 2011. 3. 11

게재확정일: 2011. 3. 21